

제6실 서적: 고대 인도와 일본의 옛 경전

N-8-1 범본심경 및 존승다라니

다라수 잎을 건조시킨 후 양 끝을 자르고 가로로 경계선을 그어 ‘반야심경’과 ‘불정존승다라니’를 범자로 기록한 패엽경입니다. 고대 인도에서는 종이가 정착되기 이전에 다라수 잎을 사용한 패엽사본이 성행했습니다. 이 패엽경은 가장 오래된 부류에 속하는 것으로서 중요시됩니다.

N-8부속 역경기

에도 유시마에 레이운지 절을 창설한 진언종 승려 조겐(1639~1702)은 실담(범자 및 범어에 관한 학문)학자로서도 알려져 있으며, 범자에 뛰어났습니다. 이 역경기는 1694년에 조겐이 호류지 절에 전래된 범자 패엽경 2엽, ‘반야심경’과 ‘불정존승다라니’를 필사하고 주점(훈독을 위해 붉은 색으로 표시한 기호)과 구의(글의 의의)를 기록한 후, 후기를 적은 것입니다.

N-11 현우경의 일부(오조무)

이 사경은 13권본 『현우경』 제5권의 사미수계자살품 제23에 해당하는 단간입니다. 필자는 쇼무(聖武)천황으로 전해지지만 자필은 아닙니다. 사경 중에서도 특히 웅대하면서 힘찬 서풍으로 ‘오조무(大聖武)’라는 별명이 있습니다.

N-14 불명경

『불명경』은 과거의 과오를 뉘우치고 염불의 힘으로 속죄하기 위해 부처들의 명호를 받아들이고 기억할 것을 설명한 경전입니다. 이 불명경은 과거, 현재, 미래 등 3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기 천 개의 불명을 열거하고 있습니다. 각 권의 간기를 통해 1141년에 오사 류케이가 고인이 된 스승 린코 대사의 1주기를 공양하고 동시에 불명회를 개최하여 이 경전을 헌납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.

제 6 실 염직: 재명번(在銘幡) 문자가 새겨진 염직품

번(幡)은 불사의 장엄 또는 연명과 추선 공양을 위해 사용된 깃발입니다. 그중에서도 재명번(在銘幡)은 문자가 새겨져 있는 번을 가리킵니다. 재명번은 호류지에 전해진 번들의 제작연대를 추정할 수 있는 단서가 됩니다.

N-27-1 : 광동 능번 잔결(廣東綾幡殘欠, 와도 7 년명)

번신의 평 부분에 ‘와도 7 년(和銅七年)’ (714 년)이라고 적혀 있습니다. 제작연대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귀중한 작품입니다.

명문 내용: 714 년에 제작함

N-319-7 : 능번 잔결(綾幡殘欠, 재명)

於富久菩(오호쿠보)라는 일본인의 이름을 음독이 아닌 훈독에 따라 한자를 새겨 넣었습니다. 7 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.

명문 내용: 오오쿠보(おおくぼ)라는 인물이 절에 봉납함

N-319-12 : 평견번 잔결(平絹幡殘欠, 임진년명)

명문의 시대표기로 보아 692 년에 제작되었다고 추정되는 번입니다.

명문 내용: 692 년 2 월 20 일... 기원하며 이 번을 제작함

N-319-8 : 평견번 잔결(平絹幡殘欠, 신유년명)

‘요로 5 년(養老五年, 721 년)’ 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번입니다. 야마베라는 인물을 추선하기 위해 제작되었다고 합니다.

명문 내용: 721 년 3 월 6 일. 야마베(山部)의 생전 모습을 그리워 하며 부처, 부처의 가르침, 승려에게 이 번을 봉납했다.

N-319-9 : 평견번 잔결(平絹幡殘欠, 기미년명)

노란색 번은 추선공양을 위한 것입니다.

명문 내용: 출가하여 도카(道果)라는 이름의 비구니가 된 모친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딸인 도요코(止与古)가 719 년에 이 번을 봉납했다.

N-319-10 : 평견번 잔결(平絹幡殘欠, 계해년명)

명문을 통해 요로 7 년(723 년)에 야마베 부인이 죽은 이를 위해 만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.

명문 내용: ‘요로 7년(養老七年)’ (723년)에 야마베의 부인이 죽은 이를 추모하며 이 번을 제작했다.